투데이 칼럼

김일성 사망 28년과 유훈(遺訓)

정 복 규

논설위원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지 28년이 지났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론 김 주석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 경외심 같은 게 여전한 것 같다.

북한 당국도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자주와 자립정신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의 '절대 관철'을 외치며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2시에 사망했다. 그로부터 28년, 여전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북한 최대 명절이고, 사망일 역시 대대적으로 기리고 있다.

사후에도 영원한 수령으로 추앙받으며 북한 사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유훈 관철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따라 하기는 집권 초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복 차림에 가운데 가르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육성 연설에서도 김 주석의 업적을 가장 많이 부각했다. 2013년 4월엔 유훈 관철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시작됐다. 북한에서 '영생법전'이라고도 불리는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어떤 조건에서도 수령을 받들고 위업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일성의 정치적 자산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취약한 권위를 보완하려는 것이 김정은식 유훈통치의 본질이다. 대표적인 유훈통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핵 무장이다.

2020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이상설에 휩싸였다.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나섰는데, 그 장소가 김일성의 유훈과 관련 깊은 순천 인비료 공장이었다.

김일성 주석이 강조했던 자력갱생 노선의 상징인 인비료공장에 나타나 유훈을 실현하고, 나아가 인민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김일성 유훈의 실체는 주석이 심장마비로 숨진 만큼 문서화된 유언 형식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생전 정치철학이나 정치노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은 유훈 관철을 이유로 핵무력 완성을 강행했다. 하지만 2018년엔 1년도 되지 않아 비핵화 카드를 들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섰다. 결국 유훈은 정책노선 변경, 체제 결속과 주민 동요 방지 등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용,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른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 10년 차를 맞아 선대 유훈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김정은 위원장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코로나19가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재개했던 북중 무역까지 다시 중단하며 더욱 강력한 봉쇄와 격리 조치를 취했다.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다시 꺼내든 게 바로 유훈 관철이다. 김 주석의 유훈인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하게 관철하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훈 관철이 장기간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멍든 민심을 달래고 또 한 번의 위기 탈출에 큰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자립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유훈통치를 강조 할수록 김정은의 자립은 멀어지는 것이다. 권력 기반에 취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북한은 점점 고립화로 함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구축한 절대 권력은 유훈 관철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통성이 희박한 3대 세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유훈 관철은 결국 독재 체제 유지의 수단일 뿐이다. 주민들에겐 오히려 무거운 족쇄가 됐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소에 줄 선 사람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엔시노의 한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소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용기는 우크라이나의 브랜드"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남녀가 "용기는 우크라이나의 브랜드"라고 쓰인 상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54일 만에 키이우주에 공격을 재개하는 등 전방위적인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설

한미 군사동맹의 카투사 장병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용산기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940~1950년대 미군 용산기지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영상 가운데는 1955년 당시 카투사 장병들의 분열행진 모습도 있어 눈길을 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을 말한다.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는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합의로 만들어졌다.

전쟁 초기 병력을 메우기 위해 만들었다. 카투사 모집은 피난민이 몰린 대구와 부산에서 주로 징집했다.

그 뒤 8,637명의 카투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미 제7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다.

미 제1기병사단, 제2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에도 구포리(제3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카투사들이 250명씩 보충되었다.

당초 미군은 미군 1명과 카투사 1명씩 짝을 짓는 전우조(Buddy System)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운용에서는 부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카투사들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혜산진 점령, 장진호 전투, 펀치볼 전투에 참전했다. 4만3,660명의 카투사들이 전투를 벌였고 1만1,365명이 전사했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의 도시 변천사를 기록한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2021년 개관했다. 용산기지를 촬영한 300여점의 사진·영상·문서자료를 볼 수 있다.

영상에는 미군이 1945년 9월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래 용산기지에서 진행한 미·소 공동대표단 사열(1946년 1월), 미 보병 31연대 창설(1947년 9월) 등이 담겨 있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마음 나누기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의 '마음 나누기 체험'이 청소년들의 미래에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 나누기 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은 전북불교네트워크 주관으로 선발된 도내 고등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북불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로 구성된 전북불교네트워크 부설 모임인 것이다.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소속 6기 실천단원 40여 명은 2017년 5월 전주시 금암동 생명평화센터 대강당에서 '마음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명상을 통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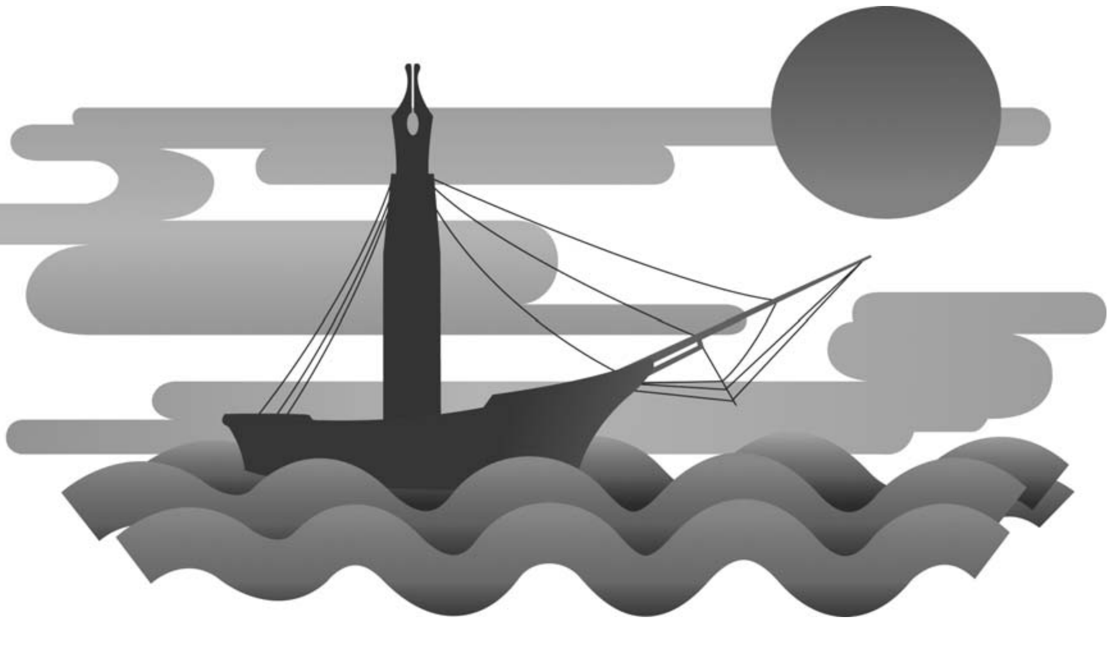
특히 송윤방 SMART PT 대표는 단원들과 함께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 관리법과 미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제7기 졸업식도 의미가 남달랐다.

졸업식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을 비롯 오종근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장,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장, 라은희 전북교사불자협의회장, 최순삼 전라북도 교육청 장학관과 실천단원, 보조교사 등 50명이 함께 했다.

법진 스님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는데 여러분도 지금이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니 앞으로의 생활에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며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전라북도교육감상도 수상했다. 제7기 실천단원들은 9개월간 통일 염원 마라톤대회,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 여름 캠프, 명사와의 만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 봉사 활동 등을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